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김지원** · 강정구*** · 마강래****

A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Baby boomers' Desire of Homecoming Migration *

Kim, Ji-Won** · Kang, Jung-Ku*** · Ma, Kang-Rae****

국문요약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해 온 세대로, 또 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세대이다. 특히,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는 은퇴 후 귀향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들이 경제적 여력, 고향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등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요인의 제약으로 인해 귀향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5인(귀향희망자, 귀향예정자, 귀향자)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관점에 기반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이들의 귀향 저해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현 거주지인 대도시와 이주희망지인 고향지역 간 상대적 격차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대적 격차는 '경제', '의료', '관계', '정주환경'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요인이 이들의 귀향 실행의 장벽이 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베이비부머의 귀향정책을 정교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베이비부머, 귀향, 은퇴이주, 고향

Abstract: Baby boomers are the population group born between 1955 and 1974 in South Korea. They are the generation to grow up in the rural areas and it has been reported in the previous literature that a large part of baby boomers now hopes to return their hometowns after their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obstruct the baby boomers' residential relocation to their hometowns by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different types of baby boomers: returners, soon-to-be returner, and wanna-be returner.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reasons behind the hesitation to the migration may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concerns about insufficient jobs, lack of medical services, concerns about social relation network and poor cultural environment in their hometown.

Key Words: Baby boomers, homecoming migration, retirement migration, hometown

* 본 논문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석사과정(주저자: w0228w@cau.ac.kr)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공동저자: jk_sw0524@naver.com)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kma@cau.ac.kr)

1. 서론

1차(1955-1965년 출생자)와 2차(1965-1974년 출생자)로 구분되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¹⁾는 약 1,700만 명으로 총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 속에서 도시화를 주도한 집단이다. 베이비붐 세대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주거이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활발한 인구이동이 예상되고 있다(임기홍, 2014).

일부 학자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²⁾'이 지방도시에 활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강호제 외, 2015). 실제, 인구이동 양상을 살펴보면,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기에 진입하면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광역시 중심부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도내 일부 소규모의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마강래 외, 2019).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귀향을 선호하는 경향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정착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남다르다(Cromartie&Nelson, 2009). 상당수의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또한 산업화·도시화 등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진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해, 귀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김원동, 2015).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국토연구원, 2011), 이들 중 일부가 귀향에 대한 욕구를 실현한다면 장기적으로 거대한 인구이동 흐름이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들의 고향으로 향하는 인구의 흐름이 생각만큼 보편화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상당수의 베이비부머는 귀향을 원하지만, 경제적 여력, 고향 지역의 열악한 정주환경 등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요인의 제약으로 인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원동, 2015).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중 66.3%가 은퇴 후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가진 베이비부머는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11). 이들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의료, 생활편의 등 대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차 서비스 기능을 향유할 수 있는 곳에서 거주하길 희망한다. 하지만, 대도시에 비해 이주희망지인 고향지역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 중 상당수가 귀향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이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하에 국내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욕구와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들의 귀향의사만을 파악할 뿐, 근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욕구를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현 거주지인 '대도시'와 이주희망지인 '고향지역' 간 상대적 격차에 있다는 가정 하에,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욕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이들의 귀향욕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귀향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는 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0년을 기점으로, 이들의 주거선호, 주거선택요인, 주거이동 특성 등을 밝히는 연구가 크게 증가했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선택요인에 기반하여, 이들의 귀향과 관련한 이동성(mobility)을 살펴본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출생하고 성장한 지역으로 회귀하는 귀향'이 촉진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귀향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 중 상당수는 은퇴 후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은 비도시지역에서의 전원지향형 노후 생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관우, 2018). 임

기흥(2014)은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쾌적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전원주택 및 타운하우스 거주를 선호하며, 이에 따라 대도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대폭 축소될 거라 예측하였다. 서수복(2010) 또한 베이비부머의 비도시지역으로의 이주가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혈연요인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귀향의 흐름을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존문헌들은 비도시지역에서의 '주거생활 쾌적성', '관계의 회복' 요인 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논문들도 다수 존재한다. 김찬호·김태훈(2012)은 이들이 선호하는 지리적 특성은 비도시지역보다는 도시근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높은 이사 성향을 보이며, 지역 간 보다는 지역 내 이동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김혜연 외(2010)의 연구에서도 이들의 주거선택 시, 에메니티 공간, 병원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이 중시되며, 도시근교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상(2007)의 연구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는 투자 가치가 있는 도심 근교의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귀향의 흐름이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는 기존 문헌들은 도시지역의 '양질의 인프라 및 의료시스템'과 일자리 및 부동산 등의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기존 문헌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에는 소득, 건강, 관계, 정주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귀향을 원하는 지역에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베이비부머의 귀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어느 한 측면에 집중된 현상을 밝히는 데만 주목하여, 이들의 귀향 저해요인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와의 인터뷰를 통해 귀향욕구를 저해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귀향욕구'를 가진 베이비부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귀향 저해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관점 기반의 심층인터뷰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을 공유해 온 여러 개인들을 연구할 때 적합한 기법으로, 연구자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베이비부머의 귀향에 관한 내면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이 느끼는 저해요인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5인을 대상으로 '귀향'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경험 및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Creswell, 2003)에 주력해, ①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비수도권 출신 베이비부머로서, ② 10년 이상³⁾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거나(귀향 희망자와 귀향 예정자), 10년 이상 수도권 거주 후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귀향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접촉하고 최종적으로 총 5명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대 인구층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눈덩이 표집 기법(Noy, 2008)을 활용해 선정하였다. 눈덩이 표집 기법은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에게 다른 참여자들을 제시하도록 하여 '경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snowball)⁴⁾'으로,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의 경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귀향에 대한 결정은 '귀향 희망'에서 '귀향 예정', 그리고 실제 '귀향'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귀향자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면서, 귀향의 희망 단계, 예정 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귀향에 대한 태도와 생각들에 대한 회고적 질문(retrospective questions)도 포함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실질적 귀향의 전 단계에서 갖는 귀향 저해요인에 대한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첫 연구 참여자로 은퇴 후 고향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남성을 시작으로 하여, '귀향욕구'에 관해 유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추천받아 분석하였다. 베이비부머의 귀향 저해요인에 관해 더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포화상태(data saturation)⁵⁾'에 이를 때까지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귀향의 저해요인에 관한 유사한 답변이 반복되는 시점을 포화상태로 규정하였는데, 5인의 심층인터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귀향 저해요인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었다. 실제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5~8인을 적절 샘플수로 간주하고 있다.⁶⁾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심층인터뷰에서는 '왜 귀향을 원하는지'에 관한 개방형 질문으로 뿐만 아니라, 귀향 저해요인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이어나갔다. 이들이 느끼는 현 거주지와 이주희망지 간 '마음 속' 격차를 규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에,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귀향자의 경우에는 계획했던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어떠한 점이 귀향을 망설이게 했는지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의 정착에 어떠한 점들이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병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9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회당 인터뷰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

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으며, 녹음내용을 그대로 필사해 분석에 사용하였다. 필사한 녹음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귀향욕구와 저해요인을 분석하였다.

2) 자료분석 및 절차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Miles and Huberman (1994)이 제시한 '자료 감소-자료 배열-결론 도출'의 3단계 과정을 기초로, 인터뷰 내용으로부터 핵심어휘를 추출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귀향 저해요인에 관한 몇 가지 핵심적 범주를 찾아냈다. 또한, Guba and Lincoln(1989)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질적연구 4가지 평가기준을 고려해, 범주도출 과정에서의 오류를 방지하고,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2인에게 연구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연구의 적용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귀향욕구가 있으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베이비부머 2인에게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화의 결과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향 저해요인을 대변할 수 있는지 점검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학위 소지자 1인의 검토를 거쳐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연구자가 먼저 코딩한 내용은 나머지 공동 연구자의 코딩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연구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참여자	성별	출생년도	직업	출생지	거주지	가족관계	귀향여부
A	남	1968 (만 53세)	자영업 (중개업)	경북 경주시	서울시 동작구	배우자, 1남 1녀	귀향 희망자
B	남	1960 (만 61세)	자영업 (재무컨설팅)	전북 정읍시	성남시 분당구	배우자, 1남 1녀	귀향 예정자
C	남	1960 (만 61세)	임금근로자	경북 봉화군	경기 의왕시	배우자, 1남 1녀	귀향자
D	남	1958 (만 58세)	임금근로자	경기 양평군	경기 수원시	배우자, 2남	귀향자
E	여	1960 (만 61세)	전업주부	경기 안성시	경기 수원시	배우자, 2남	귀향자

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와 같다.

4. 연구결과

1) 자료 범주화의 세부결과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 저해요인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귀향 저해요인을 지적했지만, 이런 요인들은 대체로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16개의 개념과 4개의 하위 범주, 4개의 최종 범주가 도출되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는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감,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여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 가족, 친구에 대한 그리움 등의 이유로 실제 고향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현 거주지인 대도시와 이주희망지인 고향지역 간 상대적 격차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대적 격차는 이들의 귀향욕구를 감소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개념의 범주화 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 범주(‘소득’, ‘건강’, ‘관계’, ‘정주환경’)로 분류되었다. 이는 <표 2>

(1) 소득: 경제적 요인

귀향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관심거리 중 하나는 ‘고향에서도 생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다. ‘생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자리 유무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이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일자리 유지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다(박태정, 2013).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은퇴 후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은퇴 후에 심포 찍는다고 생각하고 잠깐 휴식할 수는 있지만, 마냥 놀 수는 없어요. 뭔가는 해야죠. 못해본 일도 좋고, 해오던 일도 좋고,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일 하나씩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C)

“시골 가서 살더라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 몸이 버텨줄 때까지 일은 하고 싶어요.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속이 편하니까.”(참여자D)

<표 2> 자료 범주화의 세부 결과

개념	하위 범주	범주화
- 경제 활동 참가를 통한 생계 유지 및 자아 실현 - 은퇴 후 구직활동에 대한 두려움 - 노후자금 부족 - 부동산 자산 처분에 대한 부담	은퇴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를 원하지만, 고향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임	소득: 경제적 요인
- 건강한 노후 생활 유지 - 건강에 대한 염려 -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망 - 긴급상황 시,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의료환경	고향지역에서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원하지만, 열악한 의료여건에 대한 우려가 있음	건강: 의료서비스 요인
- 두터운 인적관계망 유지 - 은퇴 후 희망하는 배우자와의 노후생활 - 가까이서 함께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친구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고향지역으로 이주 시 축적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가 우려됨	관계: 사회적 관계망 형성수단에 관한 요인
-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 제2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갈망 - 문화, 여가시설의 적극 활용	현 거주지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귀향을 꺼려함	정주환경: 정주환경에 관한 요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미리 뒀어요. 고향으로 가게 되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냥 놀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새로운 일을 하며 제 2의 삶을 살고 싶어요.” (참여자 E)

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주희망지인 고향지역은 현 거주지인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의 현 거주지인 수도권에 고용 및 소득창출의 다양한 기회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실제 이러한 상대적 격차로 인해 귀향을 꺼려하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 사람이 고향에 가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수구초심이라고. 근데, ‘거기서 뭐 해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고향에 가면 여기서 사니만이 못하니까... 가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참여자 B)

“전 은퇴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좀 편히 살고 싶어요. 근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랑 확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 몸만 거든하면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시골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경주로 가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은 중단될 것 같아요.” (참여자 A)

“친구들끼리 만나면 다 ‘내려가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근데 가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고 있는 일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시골은 돈 좀 있는 사람, 일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C)

특히, 두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수도권 내 부동산 소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또한 이들의 귀향 저해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강은택·마강래(2012)는 수도권으로 이동한 사람들의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자 A의 경우에도,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고향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보유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높은 베이비부세 세대의 특성(통계청, 2010)을 고려하면, 유사한 문제로 귀향하지 못하는 베이비부머가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

“지방에 있는 고향친구들이 서울에 집이 있는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포항에 있는 친구와 제가 비슷한 시기에 집을 샀어요. 개는 지방에서 꽤 괜찮은 3억 짜리 집을 샀는데, 집 가격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 집의 가격은 계속 올라요. 분명 같은 선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자산의 격차가 꽤 나더라고요. 이걸 처분하고 무작정 고향으로 가기가 참... 복잡해요” (참여자 A)

대도시와 고향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귀향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 중 하나였다. 결국, 중·고령자의 다양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향으로 이주해 노후를 보내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종훈·서정원(2019)의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해 비도시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통한 소득 보전, 즉 경제활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건강: 의로서비스 요인

귀향을 고려하는 베이비부세 세대가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건강’이다. 이들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남기찬, 2013). 참여자들 또한 은퇴 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곳에서 거주하길 원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지역에서는 건강을 챙길 수 없을 거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현 거주지인 대도시와 고향지역 간 의로서비스 격차를 직접 경험한 참여자 A와 참여자 E는 고향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귀향을 망설인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7년 전에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경주 병원에서는 발견을 못했어요. 뒤늦게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모셔 수술을 하시게 됐죠. 그 이후로는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아지셨다 싶으면 무조건 서울로 모시고 와요. 그런 걸 한번 겪으니까 참 무서워요. 그냥 고향으로 가서 살기가.” (참여자 A)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때는 동네병원으로 가요. 어떻게든 치료가 되니까. 근데, 그걸 정말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이외에는 무조건 도시의 더 큰 병원으로 나가요. 병원에 있는 기계부터 다르더라고요. ‘시골에서 치료했다고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몸만 고생이에요.” (참여자 D)

“최근에 퇴근하다가 무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물이 찼다고 빼주더라고요. 근데, 꽤 오랫동안 낫질 않아, 대형 병원에 가 확인해보니 물을 빼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죠. 처방 방법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큰 병원에 와야겠구나’ 느꼈어요.” (참여자 E)

모든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기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향지역의 의료 환경에 대한 염려로 귀향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자 B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도시와는 다르게 비교적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고향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표현하였다.

“사실 아내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아요. 저 혼자 내려가라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진짜 급할 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잠깐씩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아무래도 시골로 가서 쭉 살기가 두려운가 봐요.” (참여자 B)

“주변에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 살다 다시 돌아온 선배가 진짜 많아요. 갈 때는 그래도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더 드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가 봐요. 건강

하게 살고 싶어 내려갔다 오히려 건강을 챙길 수가 없는 거죠.” (참여자 C)

실제, 참여자 대부분의 고향지역은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접근성, 질이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마강래 외, 2019). 이러한 대도시와 고향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또한 이들이 귀향을 실행하는 데 강한 저해요인으로 드러났다.

(3) 관계: 사회적 관계망 형성수단에 관한 요인

거대 인구층에 속해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중 하나는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인 및 친구들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길 희망한다(이수진 외, 2011). 본 연구 참여자들 또한 축적된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과 가까운 공간에서 지내며,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나이 들어서는 친구들이랑 좀 편히 놀러 다니고 싶어요. 좀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게 많아요. 일하느라 쌓인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미뤄둔 것들을 하나씩 하고 싶죠.” (참여자 A)

“노후를 준비할 때 ‘할 일’, ‘놀 친구’, ‘건강’ 세 가지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친한 사람들이랑 가까이 살면서 좀 재미있게 노후를 보내고 싶죠” (참여자 B)

귀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였다. 실제, 베이비부머의 주거선호에 있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이웃 주민의 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중요하지만(김용주·서정렬, 2013), 모든 참여자는 귀향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를 염려했다. 실제로 귀향한 참여자 D는 도

시에서 쌓아온 사회적 관계망이 귀향으로 인해 축소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가 느끼는 심리적 외로움을 ‘간혀 있는 것 같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관계의 단절을 피력하였다.

“가끔 마음이 갑갑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여기 있으면 어딘가에 갇힌 것만 같아요. 전 ‘속이 탄다’는 말의 의미를 시골 와서 처음 제대로 느껴봤어요. 여기선 놀 친구도 없고, 딱히 사는 재미가 없죠.”(참여자 D)

“제가 고향으로 오면서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친구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서울로 보러 가지 않는 이상 한번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가끔 도시 친구들이 종종 시골에 오는데, 그럴 때마다 ‘면회왔다’고 말하더라고요.”(참여자 E)

특히, 귀향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 베이비부머와는 달리, 여성 베이비부머는 도시에서 축적된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이 많아 실제 귀향을 꺼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참여자들은 귀향을 실행하는 데 무엇보다 배우자의 귀향 의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와이프는 이미 고향에는 절대 안 간다고 선언했어요. 자기는 무조건 도시에서 산대요. 그냥 시골이 싫대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외롭기도 하고,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불편한 게 많겠죠.”(참여자 B)

“저는 정말 편한 친구들이 다 고향에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다르더라고요. 애들 어릴 때부터 동네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끼리 한 번씩 모여서 노는 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어도 쉽게 가져오는 못하죠.”(참여자 A)

이들이 귀향을 결정하는 데 함께 놀고, 즐기는 ‘사회

적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고향지역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마강래 외(2019)의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해 참여자 대부분의 고향지역인 지방도시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수단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4) 정주환경: 정주환경에 관한 요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거선호는 주거환경에서의 관계, 은퇴 후 입지환경, 주거생활의 편리성에 따라 좌우된다(변우섭, 2012). 이들은 편리성과 쾌적성을 고려해, 대도시의 정주환경에서 거주하길 원한다(김혜연 외, 2010). 하지만, 고향지역의 정주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참여자들 또한 귀향을 하게 될 경우, 현 거주지인 대도시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정주환경의 인프라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 염려하였다.

“대도시에서 벗어나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고향에 내려가지만, ‘고향에서 과연 제대로 힐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요즘 시골이 옛날 시골이 아니니까. 오히려 시골보단 서울이 여러모로 좋은 환경이잖아요.”(참여자 B)

“고향 생활에 대한 로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단지 살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떠나고 있는 거죠. 고향은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마냥 귀향을 쉽게 결정할 순 없어요. 여기선 작은 문제가 생겨도 다 제가 해결해야 해요.”(참여자 C)

“그냥 ‘시골’이라 불편한 점이 정말 많아요. 도시보단 환경이 많이 뒤쳐지잖아요. 시골은 내 차가 없으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버스타도 도시처럼 이용할 수 있으면 좋는데... 자주 오지도 않아서 마트 한번 나가기도 힘들죠.”(참여자 E)

모든 참여자들은 고향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대중교통시설, 야외여가시설 이용에 있어서 지금보다 불편함

을 느낄 거라 확신하고 있었다.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주환경의 불편 체감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기에 귀향을 쉽게 결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고향에 별초를 하러 다녀올 때면 ‘서울이랑 참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주는 9시가 되면 어두컴컴해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른 저녁이라도 할 게 없잖아요.” (참여자 A)

“11시가 되더라도 도시는 생기가 있잖아요. 늦은 시간이라도 제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시골은 아니에요. 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사람도 없고, 불빛도 없고, 차도 없고. 저도 가끔은 무섭더라고요.” (참여자 E)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고향지역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곳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에게 현 거주지인 대도시는 ‘늦은 시간에도 생기가 있는 곳’, ‘불빛이 꺼지지 않는 곳’ 등의 편리한 곳인 반면, 고향지역은 ‘이른 시간에도 심심한 곳’, ‘어두컴컴한 곳’ 등의 불편한 곳인 것이다. 이러한 정주환경 격차는 귀향의 실행과 정착을 가로막는 강력한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해 온 세대로, 또한 번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세대이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는 은퇴 후 귀향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귀향’이라는 새로운 인구이동 흐름은 수도권 및 대도시의 과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이동 흐름이 생각만큼 보편화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의 경제적 여력, 고향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등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요인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이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5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해 이들의 귀향 저해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참여자들이 은퇴 후 귀향 욕구를 실행하는 데 있어 현 거주지인 대도시와 이주 희망지인 고향지역 간 ‘경제 격차’, ‘의료 격차’, ‘관계 격차’, ‘정주환경 격차’ 네 가지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요인이 이들의 귀향 실행의 장벽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하게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고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은퇴 후 귀향한 베이비부머들이 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 이외에도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도록 고향지역에서 일정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고향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료 취약 지역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대형병원이 들어서기 힘들고, 이는 베이비부머들이 귀향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귀향자의 경우에도 고향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여건으로 인해 대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의 대도시 유출, 지방도시 병원의 재정문제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로, 고향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자아 실현 욕구를 지원하는 수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은 지금의 고령자들에 비해 경제력과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게다가 이들은 두터운 인구층에 속해있어, 촘촘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타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원한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문화·여가 인프라 측면에서 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베이비부머의 관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문화, 체육, 예술, 교육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은퇴자주거단지(CCR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지는 건강돌봄, 교육의 기능을 결합해 베이비부머의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귀향을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이 현 거주지인 대도시와 이주희망지인 고향지역 간 격차에 관한 논의와 연관이 있음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 자료는, 향후 베이비부머의 귀향정책을 정교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귀향 실패 경험이 있는 자, 귀향비희망자 등 귀향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나 의견이 있는 참여자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귀향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한 분석 또한, 귀향의 저해요인을 보다 심도 깊게 고찰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해 은퇴자들의 귀향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를 보다 심도 깊게 연구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주

- 1) 본 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의는 김태현(2010)을 참조하여, 출생아수가 급증한 두 시점(1960년과 1971년)을 중심으로 전·후 각 10년씩 20년간 태어난 인구계층을 베이비붐 세대로 정의하였다.
- 2) 본 연구에서 귀향에 대한 정의는 이영준·이수진(2016)을 참조하여, 대도시 거주민의 지방 이주 이동패턴(U턴, J턴, I턴형) 중 'U턴형(출신지로 돌아가는 형태)'에 한정하였다. 'J턴형(출신지에 가까운 지방 도시로 이주하는 형태)', 'I턴형(출신지 이외의 지방으로 이주하는 형태)'은 주로 대도시 인근으로 이주하는 패턴이 나타나,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 U턴형의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의 과밀 해소와 지방 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 3) 연구 참여자를 결정함에 있어 '10년 이상'을 거주 요건으로 한 이유는, 고향을 떠나 단기간 수도권에 머무른 경험이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베이비부머들은 수도권에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수도권을 제2의 고향으로

느끼고 있었다.

- 4) 눈덩이 표집기법에 대한 개념은 Noy(2008), 고성호 외(2015)를 참조하였다.
- 5) 자료의 포화상태에 대한 개념은 Creswell(2003)을 참조하였다.
- 6) Dukes(1984)는 현상학적 연구에서 하나의 현상에 대해 3~10명의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권장하였고, Denzin and Lincoln(1998) 또한 연구 참여자 수를 10명 이내, 5~8명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5명을 선정하였다.

참고문헌

- 강은택·마강래, 2012, 수도권으로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pp.33-43.
- 강호제·김창현·민성희·홍사흠, 2018,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김용주·서정렬, 2013,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주거 선호특성 분석, 『주거환경』, 11(1), pp.37-49.
- 김원동, 2015,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 향수 너머의 현실과 활성화 방안 탐색, 『농촌사회』, 25(2), pp.93-144.
- 김창현,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지역 활성화 전략』, 국토연구원.
- 김태현, 2010,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37, pp.4-11.
- 김혜연·이연숙·윤혜경, 2010,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선호하는 주택특성에 관한 연구-서울 강남지역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5), pp.83-92.
- 남기찬, 2013, 베이비붐세대 및 예코세대의 인구동향과 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432, pp.1-6.
- 농림부, 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이주·정착의향 조사.
- 마강래·강정구·이경수, 2019, 지방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귀향지원정책의 구상, 『도시정보』, 10월호, pp.3-18.
- 박태정, 2013,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13(3), pp.29-57.
- 변우섭,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위기관리논집』, 8(2), pp.238-266.
- 서수복, 2010,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이주 결정요인 분석, 『국토연구』, 64, pp.21-37.
- 송성환·박혜진, 2018,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161, pp.1-24.
- 이관우·김지현, 2018, 은퇴 후 라이프스타일이 주거선호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동산학보』, 75, pp.87-100.
- 이영준·이수진, 2016, U턴 형태의 지방회귀 및 정주 결정 요인, 『지역사회연구』, 24(2), pp.163-180.
- 이운수·우석진, 2011, 주관적 기대가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축적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31(4), pp.855-870.
- 이수진·허선희·홍순영, 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여가소비문화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종상, 2007,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생활에 관한 연구: 주거 형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기홍·백성준, 2014,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후 주거 선택과 이동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pp.438-449.
- 채중훈·서정원, 2019, 고령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농간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3), pp.137-157.
- 통계청, 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통계청, 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Cromartie, J., & Nelson, P, 2009, Baby boom migration tilts toward rural America, 『Amber Waves』, 7(3), pp.6-21.
- Denzin, N. K., & Lincoln, Y. S. (Ed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ukes, S., 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pp.197-203.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Noy, C., 2008, *Sampling Knowledge: The Hermeneutics of Snowball Sampling in Qualitativ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1(4), pp.327-344.

게재신청 2020.08.31.

심사일자 2020.09.16.

게재확정 2020.09.22.

주저자: 김지원, 교신저자: 마강래